

광주시·전남도 올 일자리 10만개 만든다

市 3만5000개·道 6만 5000개 목표
30% 이상 양질의 상용 일자리 확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고용한파' 속에 광주시와 전남도 가 올 한해 역대 최대인 '10만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지난해 연간 수출액에서 수출도시 부산을 앞지르는 등 수출형 도시로 체질 개선에 성공한 광주시는 올해에만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3만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도 올해 신규 일자리 목표를 6만5000개로 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특히 일자리의 질을 가

올해에도 최대 3만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자신하고 있다.

광주시의 이 같은 자신감에는 지난해 수출액 사상 처음으로 14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지역경제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청년창조기업사업과 사회적 기업 장려, 노인일자리 창출, 협동조합 육성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시책의 성과도 한몫을 하고 있다.

시는 올해 광산업 1200개, 자동차 산업 2000개, 정보 가전산업 600개, 금형 산업 500개, 그린에너지 산업 6만7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올해 목표는 2만7923개(민간 9947개, 공공 1만7976개)다. 광주시는 민선 5기 이후 매년 일자리 창출 목표를 30% 이상 초과 달성한 만큼

최소 8000개 이상이다. 시는 또 공공 부문에서 최대 2만 34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창조기업과 특성화고·전문대취입 약정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1000개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전남도도 6만5000개 신규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이 가운데 35%인 2만4000개를 상용 일자리로 만들어내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신규 상용 일자리 2만1043개 보다 3000개나 늘어난 것이다. 도는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과 농업유통회사, 고품질 축산물 기업화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34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천일염 등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통해 1400여개의 고용을 창출할 방침이다.

양 시·도의 이 같은 10만 일자리 창출 계획은 국내 경제 여건의 악화 속

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18만개나 잃은데다, 올해에도 2.8%대의 낮은 성장률로 고용의 질과 양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주·전남 시·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전국적으로 저성장 한파를 겪었지만, 광주·전남은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각 141억달러와 400억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상승세를 지속해 왔다"며 "올해에도 각종 지표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국내외 기업유치와 지역 내 기업들의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늘려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방부는 14일 우리 군이 개발한 사거리 1000km의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전격 공개했다. 함대지 순항 미사일은 한국형구축함(KDX-II·4400t급) 이상의 함정에 배치됐고, 잠대지 순항미사일은 214급(1800t급) 잠수함에 탑재됐다. 사진은 함대지 순항미사일의 발사모습. /연합뉴스

광주시교육청 '거꾸로 인사'

고교 강제배정·임용고시 재시험 파문
사고 친 간부들 문책 대신 영전·승진

광주시교육청이 14일 단행한 교원 정기인사에서 대형사고를 친 문책대상 간부들이 오히려 승진·영전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고교 강제 배정 사태로 비난을 샀던 김성영 미래인재교육과장이 정책기획관으로 영전했다.

김 과장은 고교 배정 방식에 성적을 포함하면서 최근 수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강제 배정 인원을 687명이나 양산했다. 또 통학하는데 2시간이 넘는 원거리 배정과 같은 법인 소속인 사립중에서 사립고로 단 1명도 배정되지 않는 여초구니 없는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김 과장은 이 같은 사태를 예견했으면서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광주 시의회와 학부모들로부터 문책 요구를 받았다.

임용고시 재시험이라는 조유의 사

미래인재교육과장은 전교조 출신인 나승렬 장학관을 임명했다.

장휘국 교육감의 핵심 참모였던 박재성 정책기획관의 일선학교 평교사 발령도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교육계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외곽에서 자유롭게 선거 업무를 맡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장 등 일선 교육현장의 잘못은 일벌백계하면서 참모들의 잘못에는 문책은 고사하고 영전으로 보은했다"며 "그들만의 잔치를 벌인 코드·회전문 인사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병석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번 인사는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잘 받들고, 교육력 제고 조거 정착을 위한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초·중등 교사 1658명, 교감 59명, 교육전문직 58명 등 총 1775명에 대한 3월1일자 정기인사를 이날 단행했다. <명단 18면>

/박정명기자 jwpark@kwangju.co.kr

사거리 1000km... 北전역 정밀 타격

국방부, 북핵 대응 함대지 순항 미사일 공개

국방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군사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북한군 지휘부의 참모까지 골라 때릴 정도의 정밀도를 갖춘 함대지·잠대지 순항(크루즈)미사일을 14일 공개했다.

함대지 순항미사일은 한국형 구축함(KDX-II·4400t급)과 이지스 구축함(7600t급)에 탑재되는 무기이다. 잠대지 순항미사일은 214급(1800t급) 잠수함에서 발사해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게 된다. <관련기사 5면>

이들 미사일은 해상과 수중에서 이동하는 함정 및 잠수함에서 언제든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군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략무기로 꼽히고 있다. 국방부가 공개한 50초짜리 동영상에는 구축함에서 발사한 함대지 미사일이 지상의 가상 표적을 측면 타격하는 장면이 나왔다. 수중의 214급 잠수함에서 발사된 잠대지 미사일이 물 위로 올라와 목표물을 향해 비행하다가 지상 표적을 명중시키는 장면도 담겨 있다.

최근 실전 배치된 이들 순항미사일은 추공장 1개 면적을 초토화하는 위

광신대학교

2013년도 제21기
보육교사 교육원 학생모집
원서접수마감
2월 15일(금)

문의 062)605-1112
062)605-1023

신성자동차㈜
www.gi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Class
36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http://mara.kjmedia.co.kr

제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2013. 3. 1 | 금 | 08:30~16:00

플로코스 08:30 | 하프코스 08:40 | 아시아문화전당 출발
10km 09:10 | 5km 걷기코스 09:20 | 광주월드컵경기장 출발

대회개요
1. 코스 (출발지2원화)
(1) 플, 하프코스: 아시아문화전당(구, 전남도청)출발 → 승촌보 방향 → 광주월드컵경기장 끝
(2) 10km, 5km: 광주월드컵경기장 출발 → 만호초교방향 → 광주월드컵경기장 끝
2. 종 목: 5km걷기, 10km, 하프코스, 플로코스

주요운영내
1. 참가자지급품: 배번(10km코스이상 참가자 기록칩 부착), 완주메달, 기록증(10km코스 이상 완주자), 간식 및 음료, 참가 기념품
2. 개인시상: 플·하프·10km 1~45위 까지 시상 (총시상금 594만원, 총시상품 1,500만원 상당)
3. 특별상: 원양부부상, 포토제닉상, 행운상
4. 단체참가 특전: 단체참가팀 지원금 지급 및 특전(상세내역 홈페이지 참조)
5. 원거리 참가자 셔틀버스운영

주최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일보
주관 | 광주광역시육상경기연맹·전라남도육상경기연맹
문의 | http://mara.kjmedia.co.kr · 062-220-0541